'임실방문의 해' 천만관광 실현 총력

심민 군수, "계절꽃 경관 조성과 완성도 높은 사계절 축제로 손님맞이 만전"

심 민 임실군수가 3월 청원조회에서 2025 임실 방문의 해에 계절꽃 경관 조성과 완성도 높은 사계절 축제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천만관광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심 민 임실군수가 2025 임실 방문의 해에 계절꽃 경관 조성과 완성도 높은 사계절 축제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천만관광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심 군수는 4일, 3월 맞이해 개최한 청원조회에서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전 부서와 직원 모두가 나의 일이라는 각오로 손님맞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4월 5일, 6일, '옥정호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임실N펫스타', 5월 5일, 치즈테마파크 '어린이날 행사' 등, 따뜻한 봄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0월에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와 12월 산타 축제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채롭고 차별화되게 준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 군수는 "지난 1일 개장한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해 치즈테마파크, 의견 관광지, 사선대, 성수산 등에서 계절 꽃 경관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다녀가도록 관광지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실군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비롯한 중장기 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발전 및 미래 성장을 이끌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도 당부했다.

심 군수는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인 만큼 옥정호 생태탐방 교량, 세계 명견 체험 공간 조성, 임실역 KTX 정차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하나씩 해결하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봄철 환경정비와 재해 및 산불 예방을 철저히 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 달성,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도 덧붙였다.

심 민 군수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중요 현안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으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직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

논콩 생산 · 수매장려금 추가 지원

임실군이 주요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시행한다.

군은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 여건 조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발맞추어 벼 재배면적 3,666ha의 약 12%인 435ha를 감축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농지전용과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타작물(전략작물 외),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의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비 사업인 전략작물직불제(두류 200만원/ha)와 연계해 군 자체 논콩 생산장려금(60만원/ha)과 수매장려금(150만원/ha)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군 주요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장려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계에 논콩 단작 시, 국비 전략작물 직불제로 200만원/ha에 군 자체 생산장려금 60만원/ha, 수매 참여 시 150만원/ha을 지원하여 군비 포함 총 410만원/ha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계에 조사료와 밀을 재배한 후, 하계에 이모작으로 논콩을 재배하면 ha당 560만원에서 6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유형별 필지 단위 세부 감축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감축 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실시한 뒤, 11월~12월에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배정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치매로 발전할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시민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한의원에서 4개월 동안 한약과 침구 치료 등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7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경도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할 때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전화(063-620-7703)로 문의하면 된다.

고미주 남원시 치매안심과장은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분이라면 많은 참여를 당부하며, "시민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치매 예방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국장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연구 결과 학술지 게재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청국장이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양학 분야 학술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에 논문으로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진흥원은 한국 전통 장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는 그 일환으로, 원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실제로, 연구팀은 6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8주간 청국장을 꾸준히 먹게 한 후, 갱년기 증상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쿠퍼만 지수'가 청국장 섭취 후 약 1.2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쿠퍼만 지수는 얼굴 화끈거림, 땀이 많이 남, 잠을 못 이루는 증상 등 갱년기의 주요 증상들을 숫자로 바꿔 쉽게 증상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익 미생물의 함량이 높은 청국장이 혈당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는 청국장이 단순한 전통 식품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국장은 갱년기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염증 줄이기, 비만 예방, 면역력 높이기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106주년 3 · 1절 기념식 개최

임실군

임실군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임실읍 3.1동산에서 심 민 군수, 장종민 군의장, 유효선 교육장과 독립유공자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학생, 군민, 군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독립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헌화 및 분향을 시작으로 임실 3.1운동 이야기,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양현 광복회 회장의 3.1운동 이야기와 청소년 대표 2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겼다.

기념사에 이어 진행된 성악 공연에서 뮤지컬 '영웅'을 통해 그날의 감동을 함께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특별프로그램인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 20여 명의 학생들이 태극기 바람개비 나눔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순창군이 3·1절을 기념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최영일 군수, 손종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위원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행사장인 향토회관을 가득 메워 자랑스러운 3월 1일, 그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특히, 시극, 시낭송, 노래, 춤 등 여원공연시낭송회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된 기념공연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애환을 들려줌과 동시에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는 민족의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회원 모집

남원시가족센터가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나눔 활동을 위한 자조모임 회원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자조모임은 한부모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나눔 요리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임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은 회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참여자 중심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신규회원 우선)으로 남원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족돌봄팀(063-635-54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관내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두배적 금은 청년이 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240만원과 남원시 지원액 240만원,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 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근로(근로자 및 사업자) 청년(18~39세)으로, 오는 17일까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50명으로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해 전북도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2시간), 오프라인 금융교육(2시간), 금융 상담 및 컨설팅(1시간)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소득지출관리, 부동산 기초 등 종합금융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거친다.

/남원=김기두 기자